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0

이집트에 내린 열가지 재앙

(출애굽기 7:14~10:7)

여전히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긋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잡게 하셨어요.
아론이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내려치자
나일 강의 물이 온통 핏물로 변해 버렸어요!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죽어버렸고
이집트 모든 땅에 피비릿내가 가득했죠.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하! 건방진 녀석들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허나, 저 정도는
우리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하는 게 아니더냐?”**

파라오의 명령에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항아리에 물을 받아와서는
똑같이 핏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본 파라오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죠.

그러자 일주일 후, 하나님께서는
또다른 벌을 내리셨어요.
이번엔 아론이 이집트의 강과 호수,
연못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곳곳에서 수 천, 수 만마리의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왔어요!

이집트의 모든 거리와 집 안 마당
부엌의 그릇들 안에도 온통 개구리들이
들어가 있었죠!
심지어 파라오의 침실 안에도
개구리들이 가득했어요!

**“이 놈의 개구리들!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
좋다 좋아, 이스라엘 녀석들을 다 보내줄 테니
제발 이것들 좀 없애보거라! 으윽 징그러!”**

**파라오의 약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개구리들을 없애주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개구리가 사라지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벌을 내리셨어요!

이번엔 ‘이’였죠.
생물의 피를 빨아먹는 작은 ‘이’ 말이에요!
이집트 땅은 온통 이로 뒤덮혔고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려움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러건 말건
고집스러운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죠.
곧이어 네 번째 벌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뭐였을까요? 바로 파리였어요!

**셀 수 없을정도의 파리들이
이집트를 뒤덮는 바람에 사람들은 눈을
뜯 수조차 없었고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모세, 아론... 이 놈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좋다, 너희가 정 그렇게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이 이집트 땅에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내 특별히 거기까진 허락해주마.”**

하지만 모세는 파라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땅을 준비해두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뭐야? 고약한 놈들 같으니라구... 알았다, 알았다!
가든지 말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네 녀석들 뜻대로 하게 해 줄테니
이 파리를 좀 제발 없애보거라! 에잇 튼! 튼!”

모세는 파리 떼를 없애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파라오는 약속을 어겼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보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가축들에게 병을 내리셨어요.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버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잃게 되었죠.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더욱 고집스러워졌죠.

그러자 여섯 번째 벌이 내려졌어요.
이번에는 심한 피부병이었죠!
이집트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피부병을 앓게 되었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에게
똑같은 마술을 보여주라고 시켰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마술사들도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파라오의
고집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다시 경고했어요.

“이번엔 온 이집트 땅에
귀다란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진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대피시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께서서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우박을 내리셨죠.**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요!

**들판에 있던 사람과 짐승들,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
숲 속의 나무들까지 모두 다치거나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졌다, 너희를 내보내주겠다!
이번엔 진짜 보내줄테니
제발 이 끔찍한 재앙이 멈추게 해다오!”**

파라오는 이런에도 같은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드렸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역시 파라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할만큼 당한 파라오의 신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파라오시여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겁니까?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이집트는 망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 옆에서 아침하던 신하들까지
이런 말을 하자 파라오는 고민에 빠졌어요.

머리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악한 마음이 가득해져서
여전히 고집이 꺾이지 않았죠.

일곱 번의 끔찍한 재앙들!

이번에야말로 파라오가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더 큰 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